

〔對談〕 金斗鍾・宋相庸

—「月刊中央」新年號 別冊附錄「頂上人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1978—

올해 여든두살 난 一山 金斗鍾교수. 그는 한국 科學史學界의 泰斗이다. 자칭 「19세기 사람」 金박사는 젊은이 못지 않은 건강을 누리며 정력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明倫洞택 2층으로 안내를 받아 올라가니 서재로 쓰는 좁은 온돌방에 어지럽게 책이 널려 있다. 원고 쓰던 붓을 거두고 낭랑한 경상도 사투리로 맞는다.

『나 같은 늙은이에게 무슨 얘기를 듣는다고……』

늘 研究하는 젊은이로

宋=근력은 여전하시지요?

金=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몸을 움직이는 데도 불편이 없지. 될수록 많이 걸으려고 힘쓰고 있어. 날마다 6시 전에 일어나 威大 뒷산 玉流亭 악물터까지 한 시간 반쯤 산책을 하고 올라가서는 10분 동안 울동체조를 하지, 이렇게 하기를 25년 넘었어.

宋=요즘 일과는 어떠십니까?

金=학회, 집안 행사가 있거나 일요일에 친구 만나러 외출하는 때를 빼고는 들어앉아 읽고 쓰는 일이 전부야.

지금 쓰는 것은 醫學史 교과서야. 서양 의학사지만, 여기에 중국, 한국, 일본까지 넣으려고 해. 아직 이런 교재가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하니 내가 할 수밖에. 곧 끝나겠지. 그 다음에는 한국과학문화사 綜說을 쓰겠어. 그것도 내 지식의 일부야. 16년 전 정년퇴직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사회가 내게 요구하는 것도 이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주관·객관적 조건을 생각해서 내 지식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지.

죽을 때까지 긴장하는 게 정신건강이야. 시간 여유가 탈이거든. 왜 할 일이 없어? 우린 소득을 위해 책을 보는 게 아냐. 읽고 다 잊어버려도 습관이 돼서 읽지 않고는 못배겨. 5시간 계속 글을 쓸 수 있거든. 이젠 좀 피로해지기는 하지만 이게 내 정신건강이야.

宋=우리나라 학자들은 不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0만 돼도 늙은 체하고 연구실을 떠나 편하게 지내려 합니다. 그런데 金선생님의 主著 「韓國醫學史」와 「韓國醫學文化大年表」는 古稀때 나왔고, 「韓國古印刷技術史」는 八旬을 앞둔 1974년에 내셨습니다.

金=나야 원래 晩學 아닌가? 학교도 늦었고 40넘어 의학사를 시작했거든. 대학을 물러서면서 무슨 예산,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 좋은 정력, 한창 때는 사라졌고, 아직 건강한 편인데 무엇을 할까 생각했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먼저 「韓國醫學史」上中世篇을 내고 계속해서 최근세까지 일단 끝낸 거지. 醫學史年表는 우리가 과도기 사람 아닌가? 젊은이들이 한문을 읽기는 어려우니까 의학사만이라도 「朝鮮王朝實錄」같은 원전을 안보고도 손쉽게 자료를 찾아 볼 수 있도록 엮어 놓은 거야. 書誌學은 전공은 아니더라도 남겨둘 만한 것이라면 역시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발표한 게 「韓國古印刷技術史」지.

宋=선생님의 책들은 6백페이지가 넘는, 요즘엔 나오기 어려운 대작입니다. 사튼의 「科學史序說」, 니덤의 「中國의 科學과 文明」, 파딩튼의 「化學史」를 생각나게 하는 百科典書의인 책들이라고 봅니다. 과학사는 근래 경향이 바뀌어서 과학의 세세한 내용보다 그 밑에 깔린 개념의 발전을 파고 들거나 사회적 맥락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金=내가 韓國醫學史를 시작할 때 文化史로 쓰다가 上古 원고를 해쳤어. 의학사 자체에서 나아가 사회가 의학에 미친 영향, 그리고 의학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다루자니 내 힘으론 안돼. 그래 다시 썼지. 의학지식의 변천사가 가장 수월하거든.

결국 지식의 변천을 중심으로 문화사적으로 고립 안된 의학사를 쓰는 게 내 목표가 됐어. 「사튼」도 마찬가지지. 그러나 역량이 부족해서 잘 안됐어. 그런대로 끝냈지. 社會史하는 사람도 차차 나오겠지.

어두운 시절 술만 마셔

宋=金선생님은 의학에서 시작해서 의학사로 넘어오셨는데 의학을 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金=내가 태어난 慶南 咸安은 馬山서 30 리, 鎭海灣이 25 리야. 舊韓末 러시아군이 진해만에 정박했을 때 일본이 거기 눈독을 들어 시골에까지 정보원을 배치했어. 일본 과자장수가 담배, 사탕을 갖다 주고 해서 집에 따라가 일본말을 배웠는데 영어책을 읽지 않겠어. 정보원이 분명하지. 다른 데보다 서양문화가 빨리 들어왔고 많이 깎았지.

1910년 李王이 김정욱 입고 머리 깎고 馬山에 왔어. 단발령이 내리고 황제가 술선수범하니 완고한 선비들도 뒤따랐지. 할아버지가 비교적 시국을 빨리 본 이야. 머리 깎고 우리 동네서 제일 깎여. 학교가 생겨 다니면서 저녁에 先考한테 「詩傳」, 「書傳」을 배웠어. 한문을 자유로 읽는 것은 이때문이지. 서울로 와서 徵文義塾을 다녔어. 叔父가 먼저 다니신 학교지. 우리 집이 넉넉한 집이 아니야. 형은 普專 졸업하고 滿洲가서 독립운동 했고. 가정 형편도 그랬고 그땐 의학 하면 밥을 먹어. 뭐 판 것 없어.

宋=원래는 京城醫專에 들어가셨지요?

金=京醫專 1년 진급할 때 3·1 운동이 터졌어. 세브란스는 李容堯이 주동이야. 우리는 韓偉健인데, 우리야 뭘 아나? 저녁에 은밀하게 종이를 전하라기에 그대로 했지. 3월 1일 파고다공원에서 하고 여러 패로 갈렸어. 우리 패는 박석고개(원남동에서 명륜동으로 가는 고개)로 갔는데 창경원 앞에 올 때까지 순사들이 따라만 오고 잡지는 않더군. 그뒤에 명부가 드러나 붙들려 갔어. 피했다 일본으로 도망가서 京都府立醫專에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갔지.

宋=한국 사람이 또 있었습니까?

金=나 혼자였어. 중국 사람 하나 하고. 내가 있는 동안 대학으로 승격했지. 실습할 때 보니 옆의 놈이 문둥이야. 癩病 환자는 얼굴만 봐도 알거든. 『이봐, 조심해.』 했더니 네가 뭘 아느냐는듯이 모두 무시해. 나중에야 내 말이 맞은 것을 알고 소독한다 뭐 한다 난리가 났어. 일본사람들이 나더러 공부 많이 했다고 야단들야. 속으로 웃었지. 고향에 나병 환자가 많아서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하하.

宋=京都 시절 얘기를 좀 더 해 주십시오.

金=별 것 없어. 李泰圭, 尹日善, 金季洙, 李寬求, 李晶來, 돌아간 최현배…… 모두 같이 있었지. 자주 모여 등산도 하고 나라사랑도 의논했어. 어두운 시절이었어. 희망이 없었으니까. 저녁마다 술만 마셨지.

關東震災때 있었는데 까맣게 몰랐어. 저녁때 東京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더니 새벽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도착하더군. 피난 온 거지. 많이 죽었어. 일본 사람의 차별은 京都에서는 지식층이라 大阪과는 달라 비교적 괜찮았어.

宋=1920년대의 일본은 경제공황에 겹쳐 마르크스주의 선풍이 거셌을 때 아닙니까? 그 영향은 안 받으셨는지요?

金=사상 방면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 의학책만 읽었으니까. 그때 金俊淵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지. 東京은 굉장했지만 京都는 조용했어.

宋=졸업후에는 왜 귀국하지 않고 중국으로 가셨나요?

金=한국 나와야 할 일이 없어. 저녁으로 술만 먹으러 다녔지 별 수 있나? 開城 生藥研究所에도 가 보았지만 교수가 앞선해 주기에 자리가 있다는 北京으로 갔지. 1925년이었어.

그때 北京에는 義烈團이 대단했지. 가 보니 金元鳳이 단장이더군. 密陽 사람인데 젊었을 때 특별한 관계가 있어 아주 친했었지. 그런데 한국 사람들끼리 패가 나뉘어져 막 죽이는 거야. 불안해 있을 수 있어야지. 그래 金元鳳에게 중국사람을 통해 편지를 보냈지. 끝내 답장을 안해. 10년전 金斗鍾은 알아도 지금의 그는 모른다고 하더라는 거야. 나중에 들으니 장군이 무슨 말 끝에 나를 잘 봐 주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도 안심이 안돼 奉天의 滿洲醫科大學病院으로 갔어. 北京서는 독하면 밤에 군대가 바뀌었어. 馮玉祥이 이겼는데 패한 吳佩孚가 궁색하다고 도와 주거든. 한국 사람은 왜 이런 것 본받지 못하는지?

奉天서 하르빈으로 옮겨 滿鐵病院에 3년 있다 나와 개업했지. 濟世醫院이라 했어. 馬占山이라고 滿洲事變때 치치할에서 일본군을 이긴 유일한 戰勝將軍이 있었어. 하루는 나 보고 치치할까지 왕진을 와 달라는 거야. 기차로 11시간인데 군인과 같이 갔지. 갔다 오니까 일본영사관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가자 해서 영사관엘 따라갔더니 신문물을 하는 거야. 아편을 먹더냐? 사생활을 자꾸 캐묻는 거야. 아주 곤란했어. 모른다고 버텼지. 필요한 얘기는 다 하지만 환자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윤리다. 의사는 부부간에도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지.

獨立運動家들 도와줘

宋=당시 만주의 독립운동은 어땠습니까?

金=滿鐵病院에 있을 때는 관사로 독립운동가들이 찾아와서 입장이 곤란할 때가 많았어. 독립운동의 거두 金東三씨가 있었는데 내 동서의 친척이야. 禹모씨 집에 갔더니 그 양반이 앉아 있지 않겠나? 한참 얘기하고 돌아왔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그분이 붙들렸어. 한국으로 압송돼서 絶食을 하다가 돌아갔지. 독립운동자가 하르빈에 들어갔다 못나가고 자면 곤란해. 매수 당한 중국사람이 고발하거든. 柳東說씨도 우리 집에서 가족도 모르게 자고 갔지. 그러다 붙들려 가면 어떻게 하나 조마조마했지. 형도 독립운동하다 牧丹江 감옥에서 죽었어.

宋=개업해서 돈도 많이 모으셨다면서요. 그런데도 연구소로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金=지금 와서 假飾할 것은 없지. 순전히 밥 먹기 위한 거였는데 중국 시가지에서 했기 때문에 중국사람 환자들이 많았어. 그래도 취미가 없어. 제일 고통은 왕진 가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돼. 그래 사람을 데리고 다녔지. 3만원으로 집에 땅 사고, 만주에도 땅 사고 안정이 됐어. 큰 돈이었지. 공부를 해야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어. 개업 7년만에 병원을 청산하고 滿洲醫大 東亞醫學研究所에 들어갔어. 소장이 문학박사인데 원래 알던 사람이야. 내 나이 그때 벌써 마흔세살이었어. 정력은 다 갔지만 먹을 것은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어. 소장에게 얘기했더니 대환영이야. 당장

오라는 거야.

宋=醫學史는 京都 때부터 하셨습니까?

金=그때 그런 것도 없었어. 그러나 이제 실험실에는 갈 수 없었어. 기초 하기는 때가 늦었거든. 의학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였어. 거기서 6년 동안 한 것이 내 연구의 기초야. 서양식 교육을 받았지. 주로 漢方醫學 기초지식을 쌓았어. 그래서 중국의학은 환하게 됐지.

宋=書誌學을 공부하신 것도 그때부터라고 들었는데……

金=그렇지. 나는 동양의학을 연구하면서 책임도 맡게 됐어. 중국에 있는 의학책을 다 모으라는 지시를 받았지. 연구소는 특별회계라 책을 맘대로 사거든. 신청만 하면 얼마든지 사 주어. 천원이면 열댓칸짜리 집을 살 텐데 2,3천원짜리 책도 거뜬히 사 주거든. 세계에서 최고의 컬렉션이야. 귀중본 3만권을 모았으니까. 좋은 한국본을 비싸게 주고 샀지. 소장의 칭찬도 들었는데 자꾸 들여다 보니 한국책이 아냐. 元나라가 한국에서 종이를 수입해서 만든 거야. 내 실수였지.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는 안숙게 됐어. 귀국한 뒤에도 宋板, 元板에 환하니까 한국책 보기가 쉬워. 하버드 燕京學社에서 書誌學을 쓰라고 이태 동안 돈을 주더군. 여비를 받아 석달 동안 일본을 돌아다녔지. 못보던 책을 다 뒤졌어. 문화재위원회도 書誌 때문에 된 거거든. 안된다 해도 사람이 없으니 꼭 해야 된다는 거야.

宋=해방후 귀국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金=왜 없었겠어? 만주의과대학을 접수한 白系러시아인 도카젠코는 30대에 같이 술 먹고 놀러 다니던 친구였는데 집에 가겠다 했더니 정리를 끝내고 인제하라는 거야. 그 전에 서울에 한번 왔던 일이 있어. 전쟁 말기이고 애들 학교도 가야 되고 해서 우리 가족은 다 서울에 있었는데 좌익 선전이 굉장했어. 서울 장안이 쑥밭이 됐다는 거야. 궁금해서 살 수 있어야지. 도카젠코를 찾아가서 『이 놈아. 친구 덕 좀 보자. 내가 꼭 돌아온다.』고 졸랐지. 거둬서 사정을 했더니 뭘 써서 주더군. 그걸 奉天驛에서 러시아 군인에게 보였더니 安東까지 군용열차를 태워 줬. 그리고는 新義州에서 平壤까지 거뜬히 갔지. 만주서 귀중한 책을 두 채씩 平壤가는 京城紡織 차에 보낸 게 있었어. 京紡 평양지점에 책을 찾으러 갔더니 군대가 벌써 접수해 버렸지 않아. 표를 갖고 있으나 그 내용도 모르겠고 잘못하다가는 목숨을 잃겠어. 곰곰히 생각해 보고 왔다 갔다 고민하다가 포기하고 開城으로 내려왔어. 무사히 서울에 와 보니 가족은 아무 일 없이 잘 있더군. 돌아가려는데 모두 가지 말라는 거야. 金季洙, 崔光善도 말리더군. 뿌리치고 奉天으로 올라갔어. 도카젠코가 반기더군. 약속을 지킨 거지. 약속대로 정리해 주고 그 이듬해 나오는데 또 표 좀 달랬더니 이번에는 안줘. 고생 죽도록 했지.

八路軍 때문에 기차에서 며칠씩 묵고 보름 걸려 38선을 넘어 왔어. 그 귀한 책들도 못가지고 왔으니 원통한 일이지. 서울 다녀가는 동안에 논문 노트해 놓은 것들도 다 약탈당했어.

너무 打算的인 학문풍토

宋=서울대학교에 오신 다음에도 술한 얘기가 있을 것 같군요.

金=그때 의과대학 학장 하던 李甲洙를 전부터 잘 알거든. 軍政時代인데 날더러 병원장을 맡으라는 거야. 臨床 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미국 사람 총장에게 말해서 승인을 받았대. 미국서는 의사 아니라도 병원장을 하거든. 그래 원장이 됐지.

말도 마. 엉망이었어. 병원이 오물 천지고 모두 좌익이야. 하루는 새벽에 경찰 백차가 우리 집을 포위했어. 『어떻게 된 셈인지 알고 나가야 할 게 아니냐.』 못간다고 버티다 총장에게 전화했더니 가

보라는 거야. 알고 보니 누가 우리집 문에 人共旗를 꽂아 놓았다는군. 밤중에 한 것이지. 이런 판국이니 더 할 말 있어? 그 전에 동대문서에서 60명을 잡아간 일이 있었어. 좌익이니 파면하라는 거야. 『파면은 좋으나 증거를 알아야 할 것 아니냐. 불려서 얘기해 보겠다. 젊은 사람들이 뭘 한다고 했겠느냐? 그걸 선도하는 게 교육 아니냐?』 이렇게 서장에게 말하고 파면 안하고 있는 판에 깃대가 꽂혔거든. 그러니 난처하게 됐지. 이런 복잡한 일이 한 두가지 아니었어. 학생과장 崔모가 서명한 사건이 났을 때도 학장이 내게 의논을 하기에 『우리 동양법에 자식이 도둑질해도 잡아가게 하지는 못한다. 그러니 사표나 받는 것으로 해결하자.』고 했다가 내가 오해를 받았어. 국내사정 잘 모르는 나를 잡아먹으려 하기에 사표를 냈지. 6·25 석달 전이었어.

宋=동양에서는 일본보다도 먼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醫史學敎室을 만드신 비화도 있지 않습니까?

金=대학이 복잡했어. 醫專派, 城大派의 파벌 싸움이 심해서 중립파로 내가 수습을 해야 한다가에 병원장으로 간 것인데…… 醫史學敎室을 만들어 준다면 두달 동안 분규 수습만 봐 주겠다고 조건을 내 걸었지. 의학사는 독일의학 전통에서 나온 것인데 일본은 독일의학을 수입하면서도 의학사는 쏙 빼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힘들었던 거야. 기적적으로 교실은 생겼지만 의사들이 이해를 못해서 별별 어려운 일이 다 있었지. 설움도 많이 받고 싸움도 많이 하고.

일본서도 그랬지만 임상하는 의사들이 직업적으로 기술에만 전념하거든. 의학사는 기술과는 관련이 없어. 미국의 의학사가 뒤떨어진 것은 실용적 기술에 치중했기 때문이야. 우리나라도 큰일이야. 대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요구하는 것이 타산적인 것이란 말야. 과일 따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과일나무를 심어 오래 노력해서 과일이 열리도록 해야지. 사회가 너무 實用을 강조해. 이래가지고는 학문이 어려워.

미국 있을 때 잔즈 합킨스대학에서 들은 얘기야. 2차대전후 미국이 19세기말 독일처럼 세계의학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추게 됐는데도 그렇지 못한 게 원통하다는 거야. 미국은 너무 실용에 치우쳐서 학문 자체를 연구할 기초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더군.

宋=의학사학자 슈라이옥이 그런 개탄을 했지요. 미국의 기초과학 경시는 유명한 것인데 전세계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金=맞았어. 우리도 꼭 같거든. 古典은 지식을 얻자는 것이 아냐. 학문의 정신을 얻자는 것이지. 실용이 나쁘다는 건 아냐. 이렇게 야단법석해서 어떻게 되겠어? 기초하는 사람들은 말이 아냐. 국가가 이런 사람들을 도와서 생활 걱정하지 않고 실용 아닌 연구에 힘을 쏟게 해야 해. 사회적 요구가 적합하다는 게 객관성인데, 그게 지나쳐 御用學者가 되기도 하고 실용에만 치우치는 판이거든.

내가 의학자들이 모인 어떤 좌석에서 한국 의학의 곤란한 점을 지적했어. 한국은 미국 의학을 직수입하는데, 도저히 미국 못따라간다고. 미국 가서 보니까 한 방에 두세명 집어넣고 몇백달러를 받아 그걸 가지고 몇백만달러 되는 시설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더 받다가는 난리가 나. 우리는 시설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임상은 못따라가니 기초에 힘을 쓰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했지. 시설을 갖고 업적을 내는데 우리는 시설이 없지 않은가. 시설을 못하니까 우리는 못따라간다. 따라서 의학은 기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런 얘기였어.

民族보다 學問이 앞서야

宋=의학사는 기초보다도 더 기초지요. 기초과학은 응용과학에게 푸대접을 받으면서 과학사는 또 우습게 봅니다. 의학만 해도 기초하는 분 중에 의학사를 이해하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극소수일 겁니다.

金=그렇지. 그래서 미국서는 의사가 하는 사람들이 의학협회에서 뒤편 나왔어. 의사들은 케케묵은 역사는 들춰서 뒤편하느냐는 식으로 생각하거든. 과학사를 대학에서 안하는 것도 비슷한 거야. 과학사 해서 원자탄이 안나오니까 무시하거든. 이게 학문의 기본이라는 것은 모르니 탈이야. 서양서는 이런 특수과목은 학생이 몇 안되더라도 교수를 여럿 임명하는 대학이 많아. 실용 아닌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은 정부나 사회가 밀어 줘야 해. 한국 대학에 과학사 강좌나 科가 생기지 않는 데 대해서는 대학이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무관심한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어. 대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정부가 나서서 해 줘야지. 宋선생도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대학 당국자들에게 과학사의 중요성을 역설해 보았지만 牛耳讀經이었어. 정부에서도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고 있고.

학문 전체가 갱생을 해야 돼. 사회풍조도 바뀌어야겠어. 어느정도 생활을 초월할 수 있도록 해야 해. 임상 한 사람은 대학 그만두고 살지만 기초는 나오면 당장 큰일 나지. 생활에 약점이 있는 걸. 사회가 붙들어 주어야 할텐데 오히려 실용적 가치 있는 것만 도와주니 야단 났어. 언제나 사회가 정상적인 길로 나가게 될지, 원.

宋=10여년 이래 國學붐이 일어나고 어디 가든지 민족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환영해야 할 일이라 생각되면서도 한편 걱정되는 점이 없지 않은 듯한데 국학연구에 크게 공헌해 오신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金=글쎄,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몰라도 요새 사회심리에 모순이 있는 것 같애. 운동경기 하는데 일본에 이기면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일본보다 더 잘 하는 나라하고 해서 이겨도 일본 이긴 것만 못하게 칭찬 말이야. 이게 우리 심리야. 학문 자체를 평가하지 않고 최고를 민족에 두거든. 이래 가지고는 곤란해. 내가 번역자가 아냐. 지금 몇시간이던 먼 외국을 드나들 수 있는데 이게 뭐야?

민족보다는 학문이 앞서야 해. 민족만 강조해서는 학문의 자유가 안되고 학문도 안돼. 시야를 넓히고 국제적 관련에 관심을 두고 서로 협력해야지. 문화재 복구만 해도 그렇지. 좋지 않은 것은 복구 안해도 좋아. 복구에 막대한 돈을 쓰느니 연구하는 사람 뒤 봐 주는 게 낫다고 나는 주장해. 다시 말해서 복구정신 양성하는 사람을 도와 줘야 한다는 얘기야.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유용하게 쓰이지 않거든. 어쨌든 학문이 길을 잘못 걷는 예가 많아.

宋=동양학자들이 우리 것만 내세우고 마치 우리나라가 완전 고립돼 있었던 것처럼 다루는 데서 많은 과오가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조선시대의 實學者들이 주장한 地轉說을 독창적인 것으로 단정하는 따위입니다. 서구천문학, 그리고 漢化科學, 다시 말해 중국에 도입된 서구과학을 검토해 보면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金선생님은 동양과학에 정통하시면서도 한국과학의 서양, 아랍, 인도 기타 지역과의 관련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특히 의학분야에서의 동서교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金=역사학자들은 한국문화를 北方文化, 중국문화라 하는데 중국문화 안에도 그리스, 아랍, 인도 문화의 요소가 있지 않은가. 이걸 밝혀야 돼. 이렇게 말하면 머리가 돌지 않았나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거든, 중국의학만 해도 서양 것이 많아. 그걸 밝히면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도 그런 요소가 많이 나올 거야.

요전에 내가 무역회관에서 西域관계 발표가 있을 때도 질문했지만, 우리 불교는 티베트에서 중국을 거쳐 왔지 직접 온 것은 아니야. 그러나 터키(突厥), 아랍 등 중국을 거치지 않은 것도 많이 있거든. 역사학자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잘 이해가 안돼 답답해.

고려때 아랍과의 교류는 유명하지. 소주도 아랍에서 온 外來酒거든. 우리나라에는 그런 술이 없어. 開城에서 소주를 아락, 아락주라 부르는데 이게 바로 알콜이란 뜻이야. 경상도에서도 『아라기

냄새가 난다.』 하지 않아. 평안도지방에서는 예외도 있는 모양이지만 남쪽에서 제사에 소주를 쓰지 않는 이유가 그게 외래주이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깨끗한 술을 왜 안쓰겠어.

醫師 2元制는 모순

宋=얼마전 韓國科學史學會 주최 醫學史 심포지엄에서 선생님이 한국의학과 인도의학의 관계에 대해서 발표하셨지요. 좀 소개해 주실까요?

金=옳지. 삼국시대 중기, 그러니까 4세기 후반 불교가 수입되면서 인도의학도 따라 들어오게 됐어. 인도의학은 원래 이집트의학과 같이 僧侶醫學이기 때문에 중들은 반드시 處方을 배워 통달해야 하거든. 佛經을 보면 여기저기 인도의학이 눈에 띄지. 삼국시대에는 僧醫들이 많이 일본으로 건너가 의술을 가르쳤어. 요즘의 선교사 겸 의사 미션너리 닥터와 비슷하지. 처방이 남아 있지 않아 모르지만 그들이 일본에 전한 것은 한방의학뿐 아니라 인도의학이 포함된 것이 확실하지.

그런데 근세조선에 와서는 崇儒排佛의 정책에 따라 인도의학의 요소가 차츰 사라진 것 같애. 「實錄」을 보면 世宗이 眼疾에 걸려 「大藏經」에 醫方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절에 가 보려고 했지만 사람들에게 佛典을 믿는다는 인상을 주기 쉬우니 의사를 보내자고 신하들이 건의했다는 얘기가 있거든.

인도에서는 병은 地水火風의 四大不調에 원인이 있다고 했어. 이건 중국의 五行과는 다른 그리스의 4원소설과 비슷하지 않나. 四液體說은 못보았어도 인도와 그리스 의학은 닮은 점이 너무 많아. 어느 쪽이 어느 쪽에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지만 교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따라서 한국의학에도 그리스의 영향이 있었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宋=우리나라가 물려 받은 전통의학은 漢方醫學이고 開港 이후 일본을 통해서 그리고 구미 선교사들을 통해 서양의학이 수입됐습니다. 甲午改革이 있는 다음 행정 및 교육은 서양의학 중심으로 됐으나 한방의학도 병행시켰습니다. 明治維新을 계기로 洋醫 아닌 한방의사에 의한 한방 施術을 불법화한 일본과 대조적이지요. 우리는 지금 한방의사, 한의과대학, 한의학박사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됐습니까?

金=日帝는 반발을 사지 않으려고 한방의사를 醫生으로 인정했던 것인데 해방후 이것이 한의사로 승격된 것이지. 이게 二元制. 滿洲國도 2원제야. 關東軍이 정책상 그렇게 한 거지.

내가 병원장때 안된다고 했어. 漢醫法을 만들 때 한의사들이 국회의원을 매수했어. 나는 서울대학교에 漢方醫學研究所를 만들라고 주장했지만 金法麟씨가 문교장관때 漢醫科大學을 인가하고 말았어. 문제가 아주 곤란하게 됐지. 臺灣도 2원제는 안하거든. 일본은 처음부터 안했고.

中共이 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 할 수 없이 하는 것일 거야.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인구는 많고 의사는 몇 안되니까 별 도리가 없었겠지.

宋=중공은 50년대 大躍進運動때 人民公社에 보낼 의사가 모자라 한의사들을 단기훈련시켜 보조원으로 붙인 데서 시작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뒤에는 본말이 전도돼서 한의가 國醫로 불리고 양의는 종속적인 위치로 떨어진 모양입니다. 병원, 대학 등 모든 곳에서 통합이 됐다는 데 그것이 참된 통합인지 아직은 분명하지 못하다더군요.

金=사람의 생명은 하나인데 의사는 한방, 양방 二元이라니 말이 안돼.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 한방의사에게 가고, 저 사람은 돈이 있어 양의에게 간다. 생명의 값이 이런 건가? 이게 틀렸어. 왜 2원을 하는지? 이 제도는 이론, 실행에서 다 안돼. 일본서는 十全大補湯이나 加味四物湯도 아스피린과 같아서 의사는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쓸 수 있거든. 한방의사들은 자기들을 배척하는 줄 아는 데 사실은 그게 아냐. 양의가 한약 쓰면 위법이고 한의사들은 양의처방 할 수 없으니 이게 뭔가?

漢方도 科學化돼야

宋=2원제가 들렸다면 현실적으로 一元化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金=정부가 혁신해야지. 한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은 기초를 배웠으니 1원화하기 쉽거든. 안한 사람은 잠정적으로 옛날처럼 醫生으로 두고 당분간 한의사 양성은 하지 말아야지.

한방의사들이 軍醫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잘 아는 한의에게 말했어. 당신들이 멋모르고 덤비는 거다. 한방은 사회적인 것은 할 수 없다. 그건 한방의학도 의학도 아니다. 한방의학 자체가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인정을 못받아. 학문으로 인정을 못받는데 어떻게 대학이 될 수 있고 박사학위를 낼 수 있는냐는 거지. 극단으로 말해 무당이 병 고친다고 무당대학 할 수 있나?

내가 한방의학 나쁘다는 게 아냐. 나는 의과대학 교수는 못돼도 한방의사 자격은 있다고 했어. 한의과대학에서도 여러번 오라고 하는 걸 안갔어. 이념이 전혀 다른데 내가 어떻게 가?

宋=결국 양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의 처방을 할 수 있는 일본식 1원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다면 양의들의 주장과 같은 얘기가 아닙니까?

金=아니, 다르지. 한방이 자연과학의 연구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지. 전에 보면 글방 선생이 10대 어린애의 오줌을 먹는데 얼굴이 불쾌하고 좋거든. 이게 남성호르몬 때문인데 요새 이것을 제약 회사에서 빼내 수출하고 있지 않나. 麻黃에서 에페드린을 추출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서양의 학이지 한방의학은 아냐. 한방의학을 전적으로 무시할 게 아니라 좋은 것이 많이 있으니 자연과학으로 연구돼야 한다는 게 내 지론이야.

침구술이 야단인데 그 개척자는 프랑스 사람들이거든. 그들은 越南에서 침을 배웠어. 지금도 침구술 연구는 프랑스가 최고지. 일본서도 굉장히 연구하고 있고. 침은 잘 듣는데 신경계통도 림프계통도 아니고 어찌 듣는지 알 수 없거든. 침구 안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모른다는 사람이 정말 아는 사람이지. 抗生物質이 나와서 모르는 것을 많이 알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현대과학은 신체조직에 관해선 발전이 안됐다고 말할 수 밖에 없지. 어느 시기에 가서는 침구술이 왜 듣는지도 밝혀질 거야. 그러니 한방의학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소리는 못해. 다만 현재의 지식으로 해결이 안되는 걸 어쩔냐는 거야. 경험적으로 듣는다고 해서 학문적으로 모르는 것을 쓴다는 건 생명에 대한 모독이야. 경험은 이론화돼야 하는데 이론이 성립안되는 걸 덮어놓고 어떻게 쓰나?

宋=인삼의 신통한 효능도 침술 비슷한 게 아닙니까?

金=바로 그거야. 인삼을 자꾸 먹는데 왜 좋은지 모르거든. 내가 원현 갔을 때 성 호르몬에 관한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부테난트가 만나자고 하더군. 그 밑에 있는 내 조카 泰鳳(延世大 生化學科 교수)을 통해 연락이 와서 만났어. 막스 플랑크연구소에서 바이어회사의 막대한 돈을 받고 비밀리에 인삼 연구를 하고 있더군. 인삼에 대한 내 의견을 묻는데 내가 할 말이 있나? 조카 면목을 보아 말 안할 수도 없고 난처하더군. 그래 이렇게 말했지.

『내가 보기에는 인삼이 효과가 있다. 2천년을 두고 중국에서 인삼을 써 왔다. 아무리 미련해도 천명, 만명은 속을지 모르나 다는 속지 않는다. 이 비싼 약을 먹는다는 것은 현대과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게 무엇인지 모를 뿐이지. 그것을 밝혀 달라. 당신의 연구에 기대가 크다.』 부테난트는 이 말을 듣고 만족해 하더군.

중국에서 名醫가 나면 처방을 내고 그의 생전에는 제자들이 그것을 써서 여기 저기 퍼지는데 한 백년 지나면 사라져거든. 그러나 인삼은 꾸준히 써 왔어. 그러니까 뭔가 있긴 있을 거야. 한방의학의 과학적 연구가 시급해. 그러기에 내가 生藥研究所를 확대해서 한방의학연구소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批判精神 없어 近代化 늦어져

宋=저는 선생님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을 무조건 非科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근대적인 서구과학만이 과학이라는 사고방식은 독단이라는 견해가 서구에서 강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占星術도 神秘科學의 하나로 대학강의에 들어가는 판입니다. 한방의학, 나아가서 동양과학을 또 다른 종류의 과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한방의학과 서양의학의 근본적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金=서양의학에서는 환자를 볼 때 병이 어디 있느냐를 따져 간장에 있다 위장에 있다 하는데, 한방의 傷寒論은 그게 아니거든. 한방에서는 증상을 하나하나 물어서 귀납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치료하는 거야. 그것은 서양의학의 對症療法과는 또 달라.

宋=李濟馬의 四象醫學은 현대적 관점에서도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金=李濟馬는 훌륭해. 四象醫學은 古方에 속하지. 그것은 漢唐의 陰陽說에서 나온 것이고 宋元의 음양설과는 달라. 사람의 체질을 太陽, 太陰, 少陽, 少陰 네 가지로 나누는데 이론적으로 설명은 안되지만 탁월한 생각이지. 체질을 구분한 것은 새로운 게 없으나 같은 병이라도 체질에 따라 약을 달리 쓴다는 것은 중국에도 없는 독창적인 생각이야.

宋=같은 동양의학이라도 서로 다른 점이 있으리나 생각되는데 중국, 일본과 구별되는 한국의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金=우리나라 학문 전체가 壬辰亂 전까지는 일본보다 우수했어. 그런데 그 뒤에는 일본보다 훨씬 뒤떨어져. 그 전에는 修信使가 일본 가면 반드시 의사들을 데리고 갔거든. 그러나 임진란 후에는 우리나라에는 宋나라의 자연철학 陰陽五行說만 들어왔는데 일본은 清나라 考證學을 수입했거든. 일본의 의학은 宋, 元의 자연철학을 배척하고 漢나라의 傷寒論을 복구했어. 일본은 서양과학을 받아들일 기초가 있었어. 과학적 기초 위에 선 고증학이 있었으니까. 서양의학도 동양에서 일본이 가장 발달한 것은 바로 고증학 때문이야. 의학책을 읽어보면 우리 것보다 훨씬 나아. 고증학 전통이 있어 거짓말을 안해. 중국책에는 거짓말이 많거든. 일본은 서양의학을 수입해서 자꾸 적어내니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어.

宋=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近代化에 성공한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죠. 德川時代 극도의 고립정책을 쓰면서도 長崎가 통로가 돼서 계속 蘭學이 들어왔고 그것이 근대과학이 급속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金=일본서는 和蘭사람이 들어오면 藩主들, 大名들이 경쟁적으로 약을 알아 보았거든, 그때 일본은 금이 귀하고 우리나라는 흔했어. 서양상인들이 금과 바꾸려고 상품을 싣고 오면 우리나라는 무역을 하고 그들에게 배우려 하기는커녕 몽땅 뺏고 濟州島에 가두었다가 중국으로 보내 버렸거든. 그래 서양사람들은 장사하러 왔다가 혼만 나고 일본으로 갔지. 항로가 우리나라를 거쳐야 편리한데도 직접 일본으로 간 거야. 따라서 서양문화도 일본으로만 간 것이지. 우리나라 문화전통의 큰 과오야.

宋=최근 서구에서는 과학의 危機라 할까 反科學의 물결이 상당히 거셌니다. 동양의 神秘主義가 유행하고 서양과학에 대한 代案으로 동양과학에 큰 기대를 거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金=난 그렇게 보지 않아. 동양에서는 학문 자체가 直觀에서 오고 이론구성이 없으니까 비판능력이 나오지 않아. 중국사람들은 서양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어. 생선의 어느 부분이 맛있고 요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를 문제삼지 않고 어떻게 헤엄치느냐는등 그 生理를 따지니 미치지 않았느냐는 거야. 이러니 되겠어? 동양학문 가지고 동양학문을 비판못해. 동양학문의 약점이 바로 그거야. 서

양학문을 가지고서야 동양학문이 어디까지 왔다고 비판할 수 있어.

젊은이에게 자리 물려 줘야

宋=니덤은 중국과학을 서구의 기준에서 보려 한다는 비난을 받는데요.

金=그건 니덤이 맞아.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어. 서양지식 아니면 비판이 안돼.

吟風詠月이나 하고 文集이 수집권 돼도 소용없어. 退溪 같은 사람도 朱子學에 맹종하지 않았나? 학문이 權威의 노예가 되면 못써. 그러기에 實學자들은 朱子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서양과학을 받아들였거든.

우리나라 전통학문의 나쁜 버릇은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어. 지금도 학문을 건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래 가지고는 남을 지도하지 못해.

宋=그래도 한국의학에서 내세울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金=「東醫寶鑑」은 그래도 考證이 있고 객관적으로 出典도 밝히고 있어. 「東醫寶鑑」을 보고 느낀 것은 許浚이 천재적 기질이 있다는 거야. 중국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깔보았지만 「東醫寶鑑」만은 달랐어. 일본서도 江戸시대 여기서 시험문제를 냈지. 중국책들을 비교해 보면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았지.

「東醫寶鑑」중에 雜病篇 7편을 보면 알 수 있어. 환자가 오면 증상을 들어 찾아가며 처방을 하거든. 환자 보내 놓고 새로 처방할 수도 있고. 중국에는 그런 책이 없지. 아주 편리한 책이야. 독창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요새도 대만에서 「東醫寶鑑」을 자주 적어내고 있지.

宋=화제를 돌려 볼까요? 金선생님은 학계 밖에서의 활동에서는 赤十字社관계가 두드러진데요. 해방직후 保健部長을 지내셨고 南北赤十字會談 때는 副總裁로 계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金=내가 崔斗善씨와 오랜 특별한 관계가 있어. 總裁가 보건행정을 잘 모르니 도와 달라고 해서 갔던 거지. 별로 큰 일 한 것은 없고 거의 名譽職이었어.

南北會談에 나는 물론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그러나 미리 알고 있던 몇 사람 가운데 하나지. 남북회담은 政治性을 배제하고 순수 적십자정신에서 해야 했던 것인데 그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

宋=淑大 총장, 成均館大 재단이사장을 역임하신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 大學, 특히 私學의 육성방안도 갖고 계실 듯 싶습니다만.

金=대학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한가지만 말하지. 우선 정부가 대학을 잘 돌봐야 해. 대학이 스스로를 힘에 없으니까. 우리나라 대학이 6·25 사변을 계기로 營利事業으로 전락했어. 대학생의 兵役免除 혜택을 私學 경영자가 악용해서 蓄財했거든. 외국서는 못보는 현상이야. 그래서 재단 경영자가 학교 운영자로 돼 학문과 재단이 혼동되고 돈에 학문이 동요했어. 대학교수가 운영자에게 코를 꿰어 끌려다닌데서야 될 말인가? 정부는 이런 점을 방임하지 말아야 되겠어. 쓸데없는 간섭을 하기보다 교육계의 관록있는 사람이 총장 자리에 앉아 名實共히 대학을 경영하도록 밀어 줘야지. 이래야 사회에서 대학의 권위가 설 거야.

宋=4·19 직후 격렬한 世代論爭이 있었읍니다만 세대문제는 갈수록 심각한 것 같습니다. 元老世代로서 요즘 젊은이들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金=나는 젊은이들을 좋게 봐. 그들에게 기대가 크지. 혁명직후 대학 停年이 60으로 됐을 때 대학 총장회의가 열려 65세로 올리는 건의를 내기로 결의한 일이 있어. 나야 흥미가 없지. 65라도 나는 걸리니까. 그래서 관계없는 나를 교섭대표로 뽑는 寸劇이 벌어졌었어.

젊은이들이 오래 하겠다고 자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추해. 늙은이들은 경험이 많다고 착각하는

데 사실은 젊은이가 낫지. 새 순에 색이 나오는 법이거든. 늙은이들은 自肅하고 후퇴할 줄 알아야 해.

宋=다른 선배들에게서는 듣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10여년전 國立圖書館에 藏書를 기증하셨지요. 그리고도 책을 계속 모으시는군요. 저번 미국 가셨을 때도 많이 사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金=그 많은 책을 만주와 平壤에서 잃어버린 게 가슴 아파. 그래도 한 25,000원 있었는데, 국립도서관에는 書誌學관계 漢籍을 기증했고 국보급도 꽤 있지. 韓獨藥品 醫藥博物館에 간 것은 中國古醫書지. 반쯤 남아 있는데 洋書는 의과대학에 줄 생각이고 차차 정리하겠어.

宋=요즘도 醫史學教室에 들르십니까?

金=자주 못가. 그러나 늘 잊을 수 없는 곳이지. 처음 내가 교실을 만들었을 때는 六堂의 큰 아들 崔漢因이 助教授로 있었는데 6·25때 부산 가서 죽었고 그때 강사로 있던 李英澤이 내가 물러난 후 지금 교수로 있지. 내가 醫學史로 의학박사 셋을 냈어. 1호가 李英澤이고 그 다음 받은 韓昇璉은 敦化醫院長을 하면서 東西醫學研究會 理事長이고 韓南赫은 개업하고 있다가 얼마전 작고했어. 그 다음은 없어. 지금 醫史學教室에는 助敎도 없고. 걱정이야. 몇사람 희망자가 있었는데 대학에서 자격을 문제삼아 안받았어. 젊은 사람들 중에 의학사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 쓸쓸하고 걱정이 태산 같아.

그대신 科學史 일반에는 젊은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 마음 든든하지. 醫史學會, 科學史學會 다 내 손으로 만들어 이끌어 왔지. 이제는 그저 학회 모임에 나가 젊은이들의 활동을 보는 것이 큰 낙이지. 이런 추세로 나가면 한국의 과학사학계가 크게 빛을 떨칠 날이 머지 않다고 믿어.

宋=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시간 넘도록 一山선생은 조금도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피로한 기색이 전혀 없다. 언제나처럼 계단을 내려 대문까지 배웅해 준다. 문을 나서며 뿌듯한 마음으로 碩學의 뜻을 되새겨 본다.